



뮤지컬 '올곡 이이'

지역 전통 연희를 연극으로 승화 파주 극단 '예성'

“극단 ‘예성’의 연극에는 파주와 파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극단 예성은 파주의 대표 극단이지만 사실은 서울 대학로에서 출발했다. 박재운(57) 대표를 비롯한 13명이 주축이 돼 1989년 1월 창단했다. 경북 청도가 고향인 박 대표는 안양예고와 서울예전에서 연극을 공부한 정통파다.

창단 후 주로 번역극이나 기성 작가가 쓴 희곡들을 무대에 올린다. 1994년 여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에서 열린 ‘키지무나 페스타’(오키나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에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변화를 맞았다.

박 대표는 “각 나라에서 출품한 색깔이 분명한 연극을 보면서 내 색깔을 내야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연극 ‘오동동’을 만들어 배우 민경진 등이 널리 알려졌다.

그는 1996년 대학로에서 일산으로 무대를 옮겼다.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극단을 옮기고 소극장 ‘탈마당’도 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일산 소극장을 접어야 했다. 2000년 다시 대학로에 ‘리듬 공간’이란 소극장을 열어 6년간 운영했다. 극단 이름이 알려지자 2006년부터 3년 동안 부천문화재단 상주극단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대학로로 다시 가려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연극계가 점점 힘을 잃어 많은 극단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는 새 활동무대를 파주로 정했다. 당시 파주에 시민회관이 새롭게 조성된 데다 서울과도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는 대한민국 전통 연희를 바탕으로 마당극과 역사 인물전에 주력하며 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연극협회도 만들었다.

박 대표는 “파주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참 많다”면서 “‘올곡 이이’ 선생을 다룬 마당극, 정극, 뮤지컬을 창작했고, ‘방촌 황희’ 선생을 조명한 판놀음 방촌전을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트로트 마당극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마당극 중 나오는 음악은 전부 트로트를 사용하는데 관객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파주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며 제작한 작품은 40편, 공연은 120여회에 이른다. 예성은 앞으로도 파주의 향토색이 짙은 창작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에 앞으로 시립극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극단 예성 박재운 대표



한반도 평화수도

조화와 균형, 상생발전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튼튼한 인프라 구축으로
평화와 번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남북 교류 및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새로운 중심, 파주입니다.

